“가로지르며 조직하자”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원탁토론 결과 보고서

2024.4.15.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

1.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개요

2023년 11월 여러 운동 영역의 활동가들이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를 제안했다. 진영 대립을 반복할 것이 뻔한 총선을 앞두고 총선의 시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는 대신 우리의 시계로 다른 정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이었다. 사회운동의 몫이 아니라 여겨지기도 했던 '정치'가 자연스럽게 화두가 되었다. 정치의 위기를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체제의 위기로 바라보며 서로 다른 운동이 만나고 가로지르는 계기부터 만들자고 했다.

2024년 2월 '우리의 대안을 조직하자'는 구호로 체제전환운동포럼을 열었다. 78개 단체와 공동주최하여 준비한 포럼은 7개의 가로지르길 세션과 1개의 종합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많은 열정과 관심이 모이는 자리가 되었고, 운동이 서로 가로지르며 함께 배우고 전망을 틔우는 시간이 되었다. 체제전환운동포럼은 서로 다른 듯 보이는 운동들이 만났을 때 더욱 많은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포럼에 모인 관심은 정치대회로 이어졌다.

2024년 3월 23일 '사회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며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가 열렸다. 270여 명의 참여자는 정말 다양했다. 살고 활동하는 지역, 관심 있는 의제나 활동하는 단체 등 몇 가지 기준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다. 원탁마다 둘러앉은 이들이 반가운 마음을 나누며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이후 힘다지기대회에서 서로의 존재와 기대를 느끼며 서로 힘을 얻어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 보고서는 1부 원탁토론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원탁토론은 30개 조로 나누어 80분 동안 진행되었다. 조직위원회가 준비한 발제 〈체제전환운동의 정치를 시작하자〉를 함께 듣고, 조별 촉진자의 진행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의 고민과 의견을 나누었다. 30명의 촉진자가 모아준 토론결과 요약과 30명의 서기가 정리해준 토론 기록은 A4 120장에 이르렀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토론의 결과를 정리했다. 아래 내용은 대부분 참여자들의 언어와 문장으로 정리한 것이다.

22대 총선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체제전환운동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의견들은 체제전환을 위한 수많은 질문이기도 하다. 원탁토론의 결과이자 다시 시계를 움직일 우리의 과제로서 보고서가 널리 읽히기를 바란다.

2. 참여 동기와 기대 : 어떤 이들이 모였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원탁별로 모인 이들이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동기와 기대로 정치대회에 참여하게 됐는지 저마다 들려준 생생한 이야기들을 압축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나만 막막해? 다른 운동들 만나며 고민을 나누고 싶다

각자 해온 운동 안에서 답답함과 막막함을 느끼는 이들이 모였다. 내 고민을 나누고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생각을 들으며 '새로운 씨앗'을 발견하고 싶다고 했다. 다른 운동과 연결이 기대되고 서로 가로지르는 과정이 운동의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2) 체제전환운동은 어떻게 가능할지 궁금하다

체제전환의 가능성을 찾고 싶은 이들이 많았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내 운동과 체제전환운동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찾고 싶다고 했다. 의제나 영역별로 구분된 운동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세력화는 어떻게 가능한지 토론하고 싶다고 했다.

3) 체제전환을 위한 공동의 전망을 만들고 싶다

그간 운동이 체제를 넘어서는 요구를 못하고 해결사 역할을 해온 것은 아닌가. 혼자서 돌파할 수 없으므로 확장된 시야를 가지고 공동의 전망을 만들어가고 싶다. 각자의 영역에서 권리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큰 그림을 함께 그리며 희망을 찾아가고 싶다.

4) 사회운동의 정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다

22대 총선에서 운동이 위성정당에 동조하게 된 현실을 비판하는 이들이 모였다. 진보정치가 약화된 현실에서 사회운동은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정당정치에 한정되지 않는 사회운동의 정치에 대한 공동의 전망을 토론하고 싶다.

3. 토론에서 모인 공동의 문제의식 : 우리가 하고자 하는 체제전환운동은

원탁토론의 전반부는 발제문에서 공감하는 문장과 아쉬운 부분을 꼽으며 체제전환운동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었다. 발제문 중 '민중의 세력화를 위한 거점이자 조직가가 되자'와 관련해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가장 활발히 이야기했다. 특히, 달라진 민중의 얼굴, 가로지르는 운동을 통한 세력화에 높은 공감을 보였다. 아래 내용은 발제문 순서를 따르되 공감이 모인 내용을 바탕으로 항목을 재구성했다.

* 발제문(https://www.gosystemchange.kr/resources/rally)과 함께 보면 좋다.

1)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과 분석을 확장하며 구체적 투쟁을 벌이는 운동

발제문은 오늘날의 위기를 초래한 것이 '자본주의 체제'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지배세력이 그 위기를 다양한 집단과 자연에 떠넘기며 지속하고 있으므로 착취와 수탈의 현장들에서 구체적인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됐다는 걸 사람들이 감각할 수 있을 때 질적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때 자본주의 체제가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며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위기가 누구에게 어떻게 전가되며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질서가 생태를 착취하는 구조에서 비인간 존재가 배제되지 않는 시야도 필요하다. 이런 이해를 확장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과 현장의 투쟁들을 엮어내는 토대가 되며 사람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도 맞닿아있다. 탈핵은 에너지 소비의 문제이자 농촌의 식민화와 전쟁의 문제다. 개별 의제 대응을 넘어서 사회구성원의 필요를 중심에 두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비판과 현장에서 실질적 힘을 조직하는 것이 함께 가야 한다. 체제전환이 자본주의 체제와의 단절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고민과 해석이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시작점으로서, 작은 자리에서 깊이 들여다보는 과정으로서, 체제 안에서 실현 가능한 요구를 중심으로 지지를 얻으려 했던 운동에 대한 성찰로서, 구체적인 현실에 맞선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싸움을 시작하자는 제안으로 폭넓게 이해가 공유되었다.

2) 민중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해갈 수 있도록 조직하는 운동

발제문은 민중이 대안 체제를 열어가는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 민중의 세력화이며 체제전환운동은 그 거점이자 '조직가'가 되어 '보편적 권리와 정의를 위한 투쟁'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자는 제안이 상상력을 자극했다. 광장의 정치는 경험했지만 현장을 바꾸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에 부딪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삶의 현장에서 저항하는 몸짓들을 체제에 맞선 투쟁으로 새롭게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에서 존엄과 평등을 향한 싸움을 조직해야 한다. 추상적인 영역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현실에서. 체제의 모순을 겪는 여러 주체들과 연대하는 운동도 필요하다. 서로의 삶에 개입하고 세상에 대해 함께 질문하고 도전하는 과정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이렇게 자본에 맞선 집합적 주체로 민중을 사고할 때 당사자 또는 개인의 권리 중심 담론을 넘어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운동도 개별 집단이나 의제로 나뉘어 싸움을 벌여왔던 것을 돌아보며 각자의 운동이, 서로의 운동이 어떤 걸 놓치고 있는지 살필 필요도 있다. 그럴 때 각각의 싸움들이 개별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권리와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3) 민중의 달라진 얼굴을 살피며 세력화에 나서는 운동

발제문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동 속에서 민중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으며, 정체성이 분할되고 이해관계는 더욱 복잡해지는데 그것이 특수한 문제로 협소화되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 여러 운동들이 서로를 가로지르며 자본에 맞선 집합적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다. ▶

노동자를 말하면 이상하게 여성이 지워진다. 동네를 걸으면서도 보이는 복합적인 계층과 차별의 구조를 풀어낼 언어가 필요하다. 민중을 고정된 위치나 역할로 분할하는 사회질서 안에서 고정된 얼굴만 상상하는 운동은 대중을 조직하기 어렵다. 우리는 누구의 얼굴로 말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단선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을 떠올리며 운동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걸기를 할 때 자본에 맞서는 집합적 주체를 조직할 수 있다. 민중을 어떻게 상상할 것인가는 다른 운동과의 연결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단일한 정체성 찾기가 아니라 서로를 가로지르면서 자본에 맞설 힘과 전환의 단초를 상상할 수 있다. 민중의 세력화는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다. 민중의 얼굴을 구체화하며 누구와 함께 싸울 것인지 밝혀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운동이 잘 되면 세력화가 된다. 민중이라는 개념을 재구성하며 기능화, 분업화되어 움직이는 사회운동의 현재를 성찰하는 것은 체제전환의 시작이 될 것이다.

* 이와 관련해 세력화의 형식이 '정당'과 다른지, 왜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가 아니고 '민중의 세력화'인지에 관한 질문도 있었다. '민중의 세력화'는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에 도전했던 역사와 그 귀결로서의 '진보정당'이라는 전략에 대한 잠정적 유보를 담은 말이나 그것과 경합하거나 배제하는 뜻은 아니다.

4) 우리 스스로부터 새롭게 조직하는 운동

발제문은 다양한 현장에서 해방의 꿈을 잃지 않고 운동을 일궈온 운동들이 공동의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조직하면서 연합체 건설로 나아가자고 했다. ▶

체제전환운동의 주체로 나 자신부터 조직화의 대상으로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변혁의 전망을 가지고 있지만 체제에 순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속한 영역이나 단체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운동 안에서도 능력주의 경향으로 개인을 소진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미 벌어진 사건에 대한 대응 중심의 운동에 갇히거나 각자의 것을 지키는 운동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했다.

하지만 공동의 전망으로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조직하자는 제안은 두려움을 줄이고 위로가 된다. 다양한 영역과 현장에서 투쟁해왔던 사회운동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우리'가 체제전환운동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서로를 짚어주며 기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도 잘 밝혀야 한다. 서로 배우며 깨우치는 관계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내가 하는 운동에 또다른 운동을 덧붙이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공동의 정세분석과 실천이 부족했는데 실천적 운동과제를 함께 찾는 과정도 필요하다.

5) 아쉬운 부분

원탁토론에서는 발제문에 아쉬운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졌다. 말과 글이 추상적이고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자본주의 체제 비판이 현장이나 현안, 내 삶의 문제들로 잘 드러나지 않아 당면한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여전히 막연하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들로 만들어져야 한다. 지나온 운동을 돌아보는 평가가 없고, 개별 운동으로도 버거운데 어떻게 체제전환운동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호하다. 이어진 두번째 토론에서 이와 관련된 과제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4. 체제전환운동에 필요한 것들 : 우리는 체제전환운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두번째 토론 주제는 '체제전환운동에 필요한 것들'이었다. 토론에서 모인 의견은 '가로지르며 조직하자'는 방향으로 압축할 수 있다.

'가로지르자'는 말은 다양한 맥락에서 공통의 열쇳말로 등장했다. 서로 다른 여러 운동을 연결하고 연대하자는 의지, 부문/영역화된 운동을 넘어서 체제에 맞서는 운동의 방향을 벼리는 과정 또는 방법, 특수한 문제들로 치부되는 운동을 보편적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힘, 민중의 얼굴을 구체화하며 자본에 맞서는 집합적 주체를 조직하는 전략 등이 그것이다. 동시에 서로를 가로지르는 도전이 각자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하자'는 말 역시 자신의 주변 동료들, 활동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 더 너른 범위에서의 대중 등을 포함하여 우리 스스로부터 조직하자는 의미까지 다양하게 언급되었다.

정치대회에 모인 이들은 가로지르며 조직하는 체제전환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까. 30개의 조에서 조금씩 다른 주제와 쟁점으로 토론된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방향과 문제의식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1) 운동들이 가로지르는 접점을 넓히며 관계가 단단해지는 과정을 만들자

운동의 속도와 밀도를 가늠해야 한다. 공통의 감각과 언어를 구체화하며 관계성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가야 한다. 우리 안의 차이들을 살피며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각자의 운동에 갇히지 않고 서로의 운동을 이해하며 체제전환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단선적인 교류가 아닌 일상적인 가로지르기와 관계맺기가 필요하다.

서로의 운동에 접점을 더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들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각자의 운동의 요구나 고민을 공유하는 것부터 필요하다. 기자회견 등과 같은 활동에서 체제전환운동으로 만나는 단체를 호명하고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주요한 활동 일정들을 온라인 홈페이지로 공유하며 손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도 좋겠다. 서로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관점이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순간순간 서로의 존재를 실감할 수 있는 체제전환운동이면 좋겠다.

어떻게 엮이고 가로지를지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하나의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거나 각자의 위치에서 기후정의와 같은 공통 주제를 이야기하며 가로지르는 계기도 많아지면 좋겠다. 다양한 운동이 연결되는 언어와 과제를 찾아가야 한다. 정기적인 회의만이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필요하며 각 운동이 대중을 조직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다. 자발적인 모임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럴 때 함께 할 동료들을 더 많이 조직하며 체제전환운동을 확장할 수도 있다.

이것은 함께 퍼즐을 맞추며 체제전환운동의 로드맵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물리적으로 가깝거나 인연이 있던 단체들과의 교류를 넘어서, 서로 만나지 못했지만 이미 연결되어 있는 운동들의 퍼즐을 새롭게 맞춰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고 계획을 세워보는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 그럴 때 각자 어떤 운동을 하는지 일상적으로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될 수 있다. 꼭 모이지 않더라도 온라인 공간 등에서 다양하게 해볼 수 있다.

2)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맞춰가며 체제전환의 전망을 구체화 하자

운동이 가로지르며 서로의 운동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절된 이해를 넘어서는 공동의 인식을 만들어가야 한다. 체제전환운동 안에서의 다양성만큼 체제전환운동의 동질성은 무엇인지를 밝혀가야 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논쟁적인 주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다. 함께 교차하여 배우면서 정세를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며 서로 의식화를 촉진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각자의 운동에서 체제전환의 담론과 실천을 확산해가야 한다.

그러나 체제전환운동이 '또 하나의 운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체제전환을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확인하며 여러 활동의 방향을 맞춰 갈 필요가 있다. 당분간은 좀더 유연한 모습으로 광범위한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제전환운동이 건설되면 좋겠다. 운동이 어느정도 살을 찌운 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날카로운 비판으로 운동 주체를 축소시키기보다 운동을 넓히기 위한 중장기적 전망과 전략을 마련해가야 한다.

체제전환은 무엇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드러내는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그림을 그려가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와 단절하자는 지향은 분명하게 하되 어떤 자본주의인지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체제전환운동의 구체적 구호를 만들며 대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계기들이 필요하다. 반자본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를 분명히 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안체제의 이름이 있어야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조금 우세했다.

3) 체제전환운동의 전략과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

체제전환운동으로 모이는 여러 운동이 부딪친 난점에 대해 같이 고민하며 전략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과 닿을 수 있도록 운동의 요구나 활동 내용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체제전환운동의 관점에서 각 운동의 전략을 함께 고민하며 서로 기댈 수 있는 신뢰 관계가 구축되는 만큼 체제전환운동도 구체화될 것이다. 각자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태도의 전환도 필요하다. 운동이 마주하는 불안정성을 특정한 정체성이나 의제의 문제로 이해하기보다 구조적 맥락에서 서로 봉착한 한계들로 이해하며 서로 드러낼 때 체제전환의 전망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전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포럼을 정례화하자거나 작은 토론회 등 시의적절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동시에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구체적인 자본주의 체제의 그림을 그리고 투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주체와 의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자의 현장에서 서로 다른 운동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 의제를 모색하고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중 의제를 정하고 서로의 역할을 조정하며 함께 실천하고 평가하는 과정도 밟아갈 필요가 있다. 서로 함께하는 체제전환적 실천을 정기적으로 함께 해볼 수도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운동에 대한 공동의 평가도 필요하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려 했던 운동의 역사를 함께 분석하고 평가하며 어디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만들어왔는지 짚어봐야 한다. 지금의 사회운동을 잘 진단할 때 새로운 전략과 언어가 만들어질 수 있다.

한편, 전략을 모색하는 키워드로 노동, 돌봄, 공공성이 많이 제기되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계화된 노동의 의미를 해체하고 새롭게 세우는 것, 인간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는 걸 넘어서 비인간 존재를 함께 보는 관점, 돌봄을 현실과 동떨어진 관계로 보는 대신 서로 돌볼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만드는 실마리로 이해하기, 서로 다른 운동의 연대 전략으로서 공공성을 사고하기 등 기존의 이해를 넘어서야 할 필요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4) 지역과 현장에서 세를 만들어가자

민중의 세력화를 위한 체제전환운동에서 지역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각자의 일터, 활동영역, 공간, 동네 등에서 조직화를 시작하는 것이 민중의 세력화라는 취지다. 운동이 각자의 삶과 연결되어야 하며, 가까운 거리에서 체제전환을 계속 모색할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등 구체적인 공간에서 정치적 주체들을 조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서울도 하나의 지역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서울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쉬운 활동에 비수도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더 고민되어야 한다.

지역모임을 만들고 활성화하고 지역을 거점으로 한 조직체계를 구상하며 구체적인 실천을 만들어가는 시도들이 필요하다. 공통의 감각을 살리는 만남도 지역에서 더욱 가능하다. 막상 지역 차원에서 체제전환을 말하는 것이 대중과 괴리되는 '사치스러운 고민'은 아닐지 의문이 드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해가면서 이를 시도해야 한다. 동네에서 체제전환모임 만들기, 다양한 공동체 커뮤니티와의 연결 등을 해볼 수 있다. 사람과 재정을 조직하고 지역 의제들을 발굴하고 지역에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도록 제안하고 조직하며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에서의 체제전환운동포럼, 기후정의를 위한 학교파업 등의 제안도 있었다. 체제전환 수다회나 뇌피셜대회를 열어보거나 조금 더 세분화된 주제의 모임을 만들어볼 수 있다.

동시에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와 같이 모이는 자리가 적절히 있어야 지역에서의 고민도 활성화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시도가 체제전환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의제설정이나 공동의 실천도 필요하다. 흩어져 있더라도 집단으로 드러나고 작은 성공의 계기를 만들어 공유하며 서로의 자신감을 키우는 과정도 필요하다. 우리의 세를 보여 주는 집중 행동이나 투쟁을 만들어보고 진짜 싸움을 하되 함께 즐기는 장이 되면 좋겠다.

5) 더 많은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자

체제전환운동은 사회운동 간 결속을 넘어 민중을 조직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각자 자기 운동에서부터 조직가가 되자는 결의가 필요하다. 삶이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운동이 그 처지나 답답한 마음을 풀기는 쉽지 않다. '자본주의의 유혹'이 운동보다 더 재밌을 수 있고 대안적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일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삶에서 포기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르게 사는 사람을 만나고 새롭게 운동을 만드는 사람을 보며 용기와 호기심을 갖게 된다. 대중들의 삶에서 '선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신자유주의에 왜곡된

‘주체’가 아니라 함께 저항하고 연대하는 이들의 세력화를 시도할 수 있다.

지금의 체제는 실패한 체제이고 다른 체제를 상상해도 괜찮다는 것 자체를 알릴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체제는 문제다’ ‘체제전환이 필요하다’는 깔대기 전략도 필요하다. 체제전환의 지향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시키는 가시화 기획이 필요하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체제전환의 이미지도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운동이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발굴하고 이를 언어화해야 한다. 평범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얼굴이 떠오르는 체제전환의 이야기와 언어가 필요하다. ‘체제전환’에 관심을 가진 대중을 만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실험들을 하며 옅게 참여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각자의 현장,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체제전환운동 함께 하자”는 말만으로는 와닿지 않는다. 붕붕 떠다니는 말과 다른, 각자의 현장에서 느낀 구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안문과 여러 수준의 언어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래야 말걸기와 설득이 가능하다. 막연한 대중 이전에 세상이 진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먼저 조직할 필요가 있다. 각자의 단체와 공간에서 체제전환의 관점을 풀어내고 주변을 조직하려면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이 필요하다. 성소수자, 여성, 홈리스 등 구체적인 당사자를 떠올리며 체제전환운동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시도도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논쟁되는 이슈를 운동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신의 문제로 여길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도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대중과 만나는 운동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며 대면적 관계로 조직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사업을 기획하고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 외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그들로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기획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회운동의 방법론을 활성화하며 민중이 정치적 주체가 되어 가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6)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놓치지 말자

체제전환운동을 만들어가자는 제안에 다양한 세대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해서, 긴장감 만큼이나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즐거운 운동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의 태도나 언어, 조직문화, 의사결정방식 등을 계속 평가하고 피드백하면서 감수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일상에서 익숙해진 신자유주의 질서의 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서로를 일상적으로 돌보는 것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는 분명하지만 저마다의 맥락이 다를 수 있다.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비판하고 논쟁하되 적대하지 말자. 운동 간 위계나 운동의 분절화가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하는 태도가 운동사회 안에 필요하다. 어떤 문제는 특정한 운동의 몫이라는 분절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왜 연결되어 있는지 말하지 않고 이해받고 연대받기만 기대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서로 다른 운동이 만났을 때 타자화되지 않으려면 모두가 다양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각자 운동의 경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서로의 운동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는 자세와 문화가 필요하다.

운동 안에서의 배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급진적인 구호를 내걸고 활동하지만 내부에 젠더폭력의 문제가 있다거나 단체 내부에 있는 모순에 대해서도 드러내고 토론하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운동 안에서도 권력관계를 좁혀나가며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내부적인 실천방안들을 모색하면 좋겠다.

7) 연합체에 관한 고민과 쟁점들

운동의 분절화를 넘어 체제전환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연합체 건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여러 운동의 효과적인 조직화와 집중점, 주기적인 실천과 이를 종합하는 활동, 공동의 플랜을 짜면서 포획되지 않는 사회운동의 방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기대다. 그러나 조직을 만드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기존의 연대 운동 경험에서 기인하는 우려도 많았다. 기존 연합체의 한계를 보되 용기있게 시작하자는 의견만큼 연합체의 성격과 활동방향을 구체화하고 전망과 조직형태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눠볼 수 있다.

연합체의 성격은 무엇인가. 체제전환의 상이나 체제전환운동의 지향과 경로가 여전히 모호할 때, 세세한 강령이나 결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과 여러 경험과 생각을 살피며 느슨하게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공통의 인식과 전략을 우선시할 때 체제전환운동의 가능성이나 폭이 좁아질 것에 대한 우려, 막연하게 계속 해보자는 것만으로 운동의 곤경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연결되어 있다.

연합체의 구성 원리는 무엇인가. 의사결정과 논의 체계가 활동이 위임되는 방식이 아니라 운동 내 위계나 분할을 넘어서 신뢰와 유대,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지역, 의제, 여러 활동가의 역할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조직형태를 고민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의 관점을 확장하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제전환운동을 이어가기 위한 재정 조건과 인프라도 고민해야 한다. 앞선 연합운동의 역사에 대한 성찰과 토론도 필요하다.

정당운동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체제전환운동을 만들어가는 틀로서 연합체를 모색할 때 사회운동과 정당운동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현존하는 진보정당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 정치대회처럼 자유롭게 이야기를 꺼내고 나눌 수 있는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정당운동에도 활력이 될 것이다. 제도 밖을 상상할 수 있는 운동이 적어지고 제도정치권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반복되면서 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하락해왔다. 역설적인 정치의 과잉이다. 사회운동과 정당운동의 구분을 넘어서되 각 운동의 차이를 고려하며 관계를 다르게 정립해가야 한다.

5.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이후

체제전환운동 정치대회 조직위원회는 정치대회에 모인 이들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과제

를 이어가는 활동을 만들어가려고 한다. 긴 호흡으로, 동시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루지 않으며, 서로를 가로지르는 과정 속에서 체제전환운동의 전망과 전략이 더욱 분명해지는 시간을 열어가려고 한다.

조직위원회는 정치대회를 마친 시점부터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활동을 만들어갈지는 이 보고서에 담긴 토론 결과로부터 출발할 것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기존 조직위의 집행위원회 구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지만 더 많은 이들이 고민과 기대를 나누며 함께 계획을 만들어갈 방법도 모색 중이다. 두 달 가량의 준비를 거쳐 6월 중 '체제전환운동 조직위원회' 구성과 참여를 제안하고 7월 중 전체회의를 열어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대회까지 오는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심은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싹을 틔울지, 서로 빛을 쬐어주고 물을 주는 시간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